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4>

일과 여가활동 상호보완 돼야 보람있는 삶

현대경제학 '부'에 집착… 불교경제학은 검소 · 절약 강조

기존의 현대 경제학에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인 불교경제학을 제창한 대표적 사람으로서, 독일 태생의 경제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E. F. 슈마허를 들고 싶다.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 인간중심의 경제학> 중에서 '불교경제학'이라고 제(題)한 한 절을 설정해 불교 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다. <표1>은 그 개략적인 내용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자연히 그 상이점이 부각되지만, 좀 더 설명을 더하고자 한다.

먼저 기조(기본사상)로서 지적되는 것은 현대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부(wealth)에 집착하는 나머지, 필연적으로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경제학의 기조는 검소이며, 따라서 검소와 절약을 취지로 하느냐 폭력전쟁을 야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기의 욕구를 약간의 자원으로 충족시키는 사람은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보다도 서로 다투는 일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고도로 자급자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쟁 등에 휘말려들 확률이 훨씬 적다."

또 불교경제학은 재생가능자원(삼림, 식물 등)과 재생불능자원(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을 구별해, 특히 재생불능자원에 대한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대경제학에서는 그 구별에 무감각하고, 더구나 낭비로 치닫기 쉽다.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슈마허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빠뜨릴 수 없다.

"재생불능의 연료자원은 그 지역적 분포가 지극히 치우쳐 있어서 총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것은 자주 파낸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폭력행위이며, 그로 말미암아 인간끼리의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한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적군과 이라크와의 걸프전쟁의 배경에 중동지역의 재생불능 석유자원이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근대의 많은 전쟁이 자원 · 에너지의 확보와 쟁탈을 둘러싼 폭력사태였던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표1>	현대경제학	불교경제학
기조	부에 대한 집착과 폭력, 전쟁 욕망의 심화 · 노동의 생산물 중시 소비의 중시 물질적 가치의 중시	검소와 비폭력 인간성의 순화 노동력의 중시 창조적 생활의 중시 비물질적 가치(정의, 조화, 미, 건강)의 중시
기본도덕	눈앞의 이익, 타산적	지혜, 정의(진), 용기(선), 절제(미=知足)
목표	유물적인 생활양식	중도=팔정도의 하나, 바른 생활
방법론	화폐가치와 수량화의 중시	비화폐적 가치와 질의 중시
풍요관	적정규모의 생산으로 소비의 극대화	적정규모의 소비로 만족의 극대화
노동과 여가	노동은 필요악	일과 여가는 상호보완관계
생산 방식	대량생산 자본집약형 자원 · 에너지 낭비형	소규모 생산 노동집약형, 잘 기능하는 두뇌와 솜씨 활용 자원 · 에너지 절약형
기술	대량생산의 거대기술 거대함의 추구 자연 파괴적 기술	대중에 의한 중간 기술 인간의 키에 맞춘 작은 것의 추구 자연 · 생태계의 균형 중시

기본도덕에서는 현대경제학이 타산적인데 대해 불교경제학은 지혜, 정의(진), 용기(선)와 더불어 절제(미) 즉, 만족함을 아는 것을 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절제 즉 자족은 진선미중 '미'로 이어진다. 때문에 자족의 대극에 있는 탐욕이 미(美)와 정반대인 추(醜)를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불교의 기본사상의 하나는 중도(中道)이다. 중도란 결코 물적인 복지를 적대시 하는 것은 아니다. 부(富)와 즐기는 생활 그 자체 모두를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배척해야 하는 것은 집착과 탐욕심이다. 중도는 또한 절제 즉 자족을 의미하고, 불교의 팔정도(八正道) 중의 하나인 정명(正命) 즉, '올바른 생활'로 이어져 간다. 그 때문에 불교경제학에서는 중도(中道) 그리고 '올바른 생활'이 추구되어야 할 목표로 된다. 풍요로움에 관한 관점도 크게 다르다. 현대경제학에서는 "풍요로움을 적정규모의 생산으로 소비의 극대화" 결국, 가능한 한 코스트가 싼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의 극대화(무한한 욕망의 충족과 대량의 폐기물 배출)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불교경제학에서는 풍요로움을 적정규모의 소비로 만족의 극대화 "요컨대 소비를 억제하는 생활양식을 취하는 가운데에서 만족의 극대화(중도, 지족(知足)의 바른생활)"로 받아들인다. 슈마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대경제학자는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경우,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소비가 적은 사람보다도 풍족하다는 전제에 입각해 연간 소비량을 척도로 한다. 이 방법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 이유는 소비는 인간이 행복을 얻는 한 수단에 불과하며,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현대경제학과 불교경제학의 방법론상의 차이점에는 전자가 화폐가치와 수량화를 중시하는데 대해 후자는 비화폐적 가치와 질(質)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노동, 생산방식 그리고 기술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인간의 노동이 부(富), 경제의 기본적인 원천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동관 그리고 여가관은 크게 다르다.

현대경제학에서는 노동은 필요악이다. 따라서 노동은 경영상의 하나의 비용인 한편 노동자로서는 모처럼의 여가와 즐거움을 희생함을 의미한다. 이래서는 일한다는 것이 삶의 보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불교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일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 하나는 인간에게 그 능력을 발휘 향상시키는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 다음은 타인과의 협력에 의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게 한다는 것, 셋째는 성실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슈마허의 일과 여가에 관한 다음 지적은 음미해 볼 만하다.

"일과 여가는 서로 보완해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서, 둘을 분리해버리면 일의 기쁨도 여가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만다."

생산방식과 기술측면에서는, 현대경제학은 대량생산방식, 따라서 거대기술을 추구하는데 비해 불교경제학은 대중에 의한 소규모 생산을 중시하고 솜씨있는 손의 활용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키에 맞춘, 자연 · 생태계의 균형을 중시한 기술의 도입을 의미한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⑭ 코칭의 언어

허달의 불교와 코칭

깨끗함 · 예술적 언어 지향하는 코칭 어법

2007년 11월 13일 플로리다 쌩 어거스틴 소재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에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었다. LPGA의 영원한 상징 낸시 로페즈의 손에서 세계골프 명예의 전당 입회 트로피가 박세리의 손으로 건네진 것이었다. 흰 바지에 금빛 단추로 장식한 검은 색 윗옷 정장을 입고 트로피를 손에 든 채 박세리는 3000여 축하객들 앞에서 당당한 영어로 입회소감을 밝혔다. 1998년 메이저 대회인 U.S. Women's Open을 당당히 정복하고도, 마이크를 들이미는 ESPN 아나운서에게 '기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려는 의도로 어설픈 'like, like'를 연발하던 재투성이 신데렐라 소녀의 주눅든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9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당신은 악마 같은 것 같아요' 라는 제목으로 '박은주의 태평로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같아요 어법'을 다룬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 간에 유행하는 옛 '박세리 식' 어설픈 자기 표현 모습을 나무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같아요 어법' 속에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세대 모두의 비겁함, '공격할 때는 좀 비겁하게, 방어할 때는 더욱 비겁하게' 증후군을 개탄하는 글이어서 크게 공명했다.

코칭의 언어는 '같아요 어법'을 단호히 배격한다.

코칭이 비록 고객의 언어를 사용해 고객과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고객이 '같아요 어법'을 구사한다고 해서 이를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리더십 과정에서는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도적 언어를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주도적 언어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 대신에 '~하기로 했다, ~하기로 선택했다', '~같아요' 대신에 '~이다, ~임을 확신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꼭 NLP [Neuro-Linguistic Programming]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고객이 주도적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의 주도성이 크게 항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쉬운 예로서, 상대방을 인정 칭찬하면서 '같아요 어법'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군요' 라는 인정 표현을 쓰면서 상대방의 눈을 그윽하게 응시하는 경우와,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눈길을 잠시 피하는 '같아요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상상해 보시라. 이 차이로 인해 고객에게 닿는 울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업 간부에 대한 코칭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객을 처음 만나보니 늘 미소 짓는 좋은 인상의 어눌한 분이었고, 이른 바 '같아요 어법', 비주도적인 어법을 쓸 뿐 아니라 그것도 자주 끊어져서 코치와의 첫 대화에서도 좀처럼 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답답할 정도였다. 고객 자신도 코칭을 통해 자신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함양하고 언어습관도 눌변에서 달변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고객과 코치가 함께 놀란 것은 이 고객의 현 수준평가를 끝내고 나서였다. 명확한 언어의 구사 능력, 설득력, 등의 의사소통 평가 항목에 대해 본인의 자기평가는 '최하'였음에 비해 부하직원의 평가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코칭의 몇 차례 다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 고객의 눌변과 미소가 부하들에게는 경청의 효과를 일으켜 그들로 해금 마음을 열게 하는 선행 과정이 된 까닭에, 어눌하고 비주도적인 상사의 말조차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로 받아들이게 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발견이 이루어진 이상 코칭의 목표는 달변을 이루고자 함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눌변과 미소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같아요 어법', 비주도적 어법만을 주도적 언어와 중립적 언어로 대체한다는 처방을 얻게 된 것이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 우먼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생모가 포기각서를 쓸 정도로 거칠어진 그녀를 다잡아 고삐를 조인 후 의부(義父)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 남이 만든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 한 마디의 레이저 질문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뭐꼬?' 경상도 사투리의 이 질문이 잊혀질만 하면 늘 불자의 마음에 되돌아 오는 것도 이것이 강력한 '레이저 언어'이기 때문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